

중국에 '꿈의 스튜디오' 연다

광주시립미술관 12월 베이징에 창작센터 오픈

지역작가 작품활동... 국제무대 진출 기회 제공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이 '세계 미술관
장의 허브' 중국에 진출한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오는 12월 1일 중국 현대미술의 중심으로 부상한 따산쯔 환티에(環鐵) 창작예술지구에 창작센터를 개관한다고 6일 밝혔다. 지방공립미술관이 지역작가들의 국제무대 진출을 돋기 위해 외국에 창작스튜디오를 개설하는 것은 광주시립미술관이 처음이다.

1천여㎡ 규모의 창작센터는 현재 리모델링 작업 중이며, 지역 작가 한 사람에게 170㎡(50평)의 작업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창작센터에는 5명의 작가가 입주해 6개월간 작업을 하며 시립미술관은 이들에게 왕복항공료를 제공하고 전시회를 지원한다.

또 작가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중국의 저명한 기획자나 평론가, 화랑관계자와 함께 워크숍과 세미나를 열고 세계 미술 시장 진출을 도울 계획이다.

시립미술관은 건물주와 5년간 장기 임대계약을 맺었으며 연 1억2천만원의 임대료를 부담한다.

특히 지난해 서울시 인사동에 문을 연 '광주시립미술관 갤러리 LIGHT'가 성공적으로 운영된데 이어 창작센터가 개관하면 지역작가들의 세계무대 진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는 크고 작은 경매회사만도 120여개이

며, 미술시장 연매출액도 6조를 넘어서 등 세계 미술시장의 흐름을 좌우하고 있다.

또 베이징은 따산쯔와 송장지구 등 10개의 문화특구가 형성돼 뉴욕과 함께 현대미술의 메카로 급성장하고 있다.

창작센터가 들어서는 따산쯔 환티에 창작예술지구는 최근 중국 현대미술의 중심으로 부상한 곳이다.

박지택 관장은 "국내 국립 미술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외국에 창작센터를 열어 지역 작가들의 세계무대 진출을 돋게 됐다"며 "우수한 지역 인재들을 발굴해 명실상부한 예술으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창작센터

의 입주작가는 광주 지역 30~50대 작가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오는 14~16일 신청서를 교부·접수해 오는 23일 입주선정자를 발표한다. 선정된 작가들은 12월 1일 ~ 2010년 5월 20일까지 창작센터에 입주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7일 시립미술관 홈페이지(<http://www.artmuse.gwangju.go.kr>)에 게재되는 제1기 입주작가 선정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시립미술관은 지난해 8월 국내 대표 갤러리 밀집 지역인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미림화방 건물 2~3층에 '갤러리 LIGHT'를 오픈했다. 이곳에서는 10월 현재 세차례의 기획전과 50여 회의 대관전이 열렸다. 문의 062-510-0131.

/오피니언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이 오는 12월 중국 베이징에
지역작가들이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창작센터를
마련한다. 사진은 창작센터가 들어서는 따산쯔 환티에

창작예술지구 모습.

재즈와 만난 '유열의 싱싱싱'

10일 광주문예회관



역동적인 사운드로 들려준다.

또 'Fly me to the moon'은 김미로운 보사노바 스타일로 연주된다.

가수 유열은 본인의 히트곡

'이별이래' '화려한 날은 가고'를 재즈 빅밴드 스타일로 편곡해 들려주며, 즐겨 부르던 재즈 레퍼토리도 선보인다.

R석 2만원, S석 1만원. 문의 062-510-9251.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목포는 지금 '문학축전' 중

문화관 일대서 공연·전시

10월 한달 동안 목포에서 행복한 문학의 향기에 흡뻑 빠져보자!

목포문화관 개관 2주년을 축하하고 지역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목포! 문학축전'이 10일부터 30일까지 목포문화관 일원에서 열린다.

공연·전시·체험 등 총 8개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학축전은 즐거운 '문화공연', 전국의 유명 문인들의 '자화상과 친필 기록전', 소설가 문순태씨와 함께하는 '작가와의 만남', 보지 않는 현책을 모아 소외계층에 기증하는 행복한 '도서나눔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목포문화축전기간에는

목포 지역의 학교, 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을 찾아 문학의 역사와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갖는 '찾아가는 문학교실 문학강연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문학강연을 원하는 단체나 학교는 문학관에 1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또 17~18일에는 목포출신 여류 문인인 고(故) 소영 박화성의 문학세계를 널리 알리는 '2009 소영 박화성 문학 페스티벌'을 연다.

한편 10일 개막식에는 목포의 문학적 전통을 이끌어 가기 위해 올해 처음 제정한 '제1회 목포문학상' 시상식과 '학생문학공모전' 시상식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문의 061-273-6622.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목포=임영춘기자 lyc@

남도 풍류 담은 창작무대 '무어별'



극단 예인방 9~20일 나주문화회관... 10일 유인촌 문광부장관 공연 관람

나주 지역에서 활동중인 극단 예인방 김진호 대표는 얼마 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공개 편지를 보냈다. 극단에서 무대에 올릴 예정인 '무어별'(無語別)(9~20일 나주문화회관) 공연의 초청을 겸한 편지였다.

유 장관이 '연극인' 출신이라는 점

이 편지 쓸 용기를 주었다. 편지에는 지방의 열악한 문화 인프라를 살펴 둘러보고, 척박한 향토에서 고군분투하는 지방 예술인들의 처진 어깨를 다독여 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지방에서 이 정도의 연극을 만들었다"는 자랑도 하고 싶었다.

유 장관은 훤히 화답했다. 그는 10일 나주를 방문 공연을 관람할 예정이다.

이번에 올리는 '무어별'은 예인방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주 출신 인물을 소재로 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나주, 더 나아가 전남도

를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를 통해 풍부한 면을 거리, 아름다운 풍광, 다양한 문화유산이 어우러진 '관광상품'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차 계획이 담겨 있다.

'무어별'은 나주 출신 명문장가이자 풍류객, 황진이와의 인연 등으로 많이 알려진 백호 임재 선생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무어별'은 임재가 남긴 시와 글, 그리고 일화를 각색해 임재와 황진이를 쓰 빼닮은 딸 설홍의 사랑 이야기로 변모시켰다. 정민아씨가 희곡을 썼으며 차영호씨가 연출을 맡았다. 김경민·임은희·송수영·김진호·임은연씨 등이 출연한다.

1981년 10월 창단한 예인방은 73회

정기공연을 통해 100여편의 창작극을 제작하며 열악한 지역 연극계를 지키고 있는 극단이다. 올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전남도청 '공연예

술단체 집중 유통 지원단체'로 선정돼 3년간 1억5천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김진호 대표는 드라마를 통해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몽'의 양탁 역으로 많은 인기를 모았고, '해신' '이산' '시티홀' 등 각종 드라마에 출연했다.

한편 함께 편지를 받은 박준영 전 남도지사도 9일 연극을 관람할 예정이며 유장관은 공연 관람에 앞서 나주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이전 부지와 영암 F1 현장 등을 둘러보고 진도에 위치한 국립남도국악원에서 1박 2일, 11일 명랑대첩축제를 관람한다..

김 대표는 "내년에는 '김치'를 소재로 한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 공연'을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티켓 가격 2만원, 문의 061-335-4321.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예술가는 배고프다

10명 중 3명꼴 月 소득 100만원 이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부 정병국(한나라당) 의원은 6일 "예술인의 28.7%는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예술인 인식 및 복지수요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예술인의 4대보험 가입실적은 건강보험의 경우 98.2%였지만 국민연금은 52.0%, 산재보험 33.8%, 고용보험 33.3%에 머물렀던 것으로 집계됐다.

문화부는 지난 2008년 12월 연극인과 영화인, 무용인 등 예술인 600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 예술인 가운데 비정규직은 52.5%였으며, 12개월 이상 지속 근무자는 4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예술인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실제로는 대부분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어렵게 삶을 영위해 가고 있다"며 "예술인 복지에 대한 제도 개선과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출신 윤지현씨 '으뜸상'

광복 64돌 기념 전미주미술공모전

광주출신 한국화가 윤지현씨가 주미한국대사관과 재미한국화가회가 공동주최한 '광복 64주년 기념 전미주미술공모전' 한국화 공모에서 대상격인 으뜸상을 받았다.

재외동포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전 미주미술공모전은 이민동포 사회의 문화적 주춧돌을 놓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미술상이다.

윤씨는 이번에 수목 담채로 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1.025%의 진실'을 출품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1.025%는 바닷물의 비중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을 뜻한다.

입상작은 오는 15일까지 LA 한국교포원에서 '한국의 빛'을 타이틀로 전시되며, 이 전시에는 이 지역작가인 박문수, 백현호씨의 작품도 함께 선보인다. 윤씨는 전남대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대한민국미술대전, 광주미술대전, 전남미술대전에서 수상했다.

/오피니언기자 kroh@

'1.025%의 진실'

작은만남 큰 기쁨	광주일보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신정 및 배달사업 분사 판매(062)220-0551										
죽향골식당 담양읍 지침리 대나무보일옆 별마추어탕, 죽순된장찌개 대표 최동립 (061)382-1278	(주)백두전력소방 장성군 읍 영진리 군민회관 전기, 통신소방시설점검/내외선증설공사 설계·시공 감리업체 (061)394-5656	구례식당 복구 우산동 323-2번지 길자조림, 둘러찌개, 김치찌개, 벽전 대표 장정순 (062)529-0071	보길도 상무지구 5·18기념문화센터 건너편골목 해상한전복·이화진·연희장·주자장·비 대표 정종렬 (062)373-2770	강남공인중개사무소 광신구 수원동 모이엘@상가 05호 분양임대 APT, 상가주택 투자 매매 및 임대 각종 부동산컨설팅 상담문의 대표 김경숙 (062)962-0056	디자인플러스 동구 화동 병무청 정문앞 영등빌딩 606호 컴퓨터그래픽 디자이너·현장설계·구함 주5일근무 경력자무대 대표 홍명남 (062)222-9921	동명동동탁칠복계 동명동 184-1번지 옻이 오르지 않은 옻풀, 옻진원 대표 홍명남 (062)222-9921	한기건강기능식품 서구 회정동 회정4거리 복천리 맞은편 식품으로 모질병치료 오신걸번·민성한방 기치료 회원수시모집 (010)5618-3487			
성시메디칼 복구 우산동 동신고 건너편 디지털보청기·생활의료기·병의원용품 전문점 대표 김광수 (062)432-5289	(사)한국역사학회 복구 우산동 330-2번지 수창초교후문 2층 작명, 시주, 궁합, 관상, 풍수 역학상담사 자격보유 (062)232-5657	애플타워분양임대 서구 치평동 면자골목내 생선구이 전문점 대표 정정환 (062)456-5753	부원농산 광구 수원동 24000세대 최고급 아파텔·하 병·의원 및 학원 모든 업종 가능 24시간 상담문의 환영 (062)951-3500	삼성드림이벤트(주) 제물동 농산물관점장부자동차미디어시장문 천현민족·쌀·생산농가직거래·해안간척지쌀 도·소매업체 전회주문시 신속배달 (062)351-4286	오성건업 서구 생활동 문현저수지옆 삿시·삿티·유리·스텐·집철 대표 김범석 (062)373-2144	양복수선 광주 서구 회정동 양복주점행사거리에서 광복교문 양복 명품 양주수선전문점 http://cafe.dam.net/parkjarewoong (062)371-3666				
대나무골건강원 담양군 읍 치침리 터미널앞 혹염소, 봉어즙, 자연신민물장장·화장 양파즙, 애자·과일즙, 흥삼액기스 (061)383-3333	영구당구클럽 서구 흥정동 농협중앙회 앞 흥정 3층 화신스포츠풀스아트로프etti 차주자장·비 신축건물, 페직한현경 (062)655-3949	낙지한마당 서구 삼무지구 5·18공원앞 면자골목 낙지 전문점 대표 김종윤 (062)384-7727	DC마트 광신구 수원동 흥전에 베일@후문 1층 33일 최고의 상황을 최고 기준에 판매해 전화주문시 무료 배달 서비스 (062)859-5599	오도로참치 복구 종충동 전대후문건너 복개로						